육아정책연구
제14권 제1호(2020. 6.) 3~25 https://doi.org/10.5718/kcep.2020.14.1.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수영[1] 이명신[2]

요 약

본 연구는 아버지 특성, 사회적 맥락, 아동특성이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경남 및 경북 지역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210명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의 가족친화성, 아버지 소득, 배우자취업여부, 사회적 지지, 자기통제력, 막내자녀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소득, 직장의 가족친화성, 배우자 취업여부, 사회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의 가족친화성 강화 방안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책임감, 직장의 가족친화성

Ⅰ. 서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보편화되고, 핵가족, 한부모 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아버지들에게 경제적인 역할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 공동양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leck, 2010; Pleck & Masciadrelli, 2004).

이로 인해 아버지 양육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정우영·김희영, 2015). 또한 대중매체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나현정, 2017). 이처럼 기혼남성들은 '좋은 아버지'에 대

* 본 논문은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관한 연구(안수영, 2020)」를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

1) 진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강사
2)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으나(박희숙, 2016), 실제 양육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해야 하는 이중부담과 이상적 아버지와 실제적 아버지간의 불일치로 갈등을 겪고 있다(김영철·양진희, 2014).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가족친화제도와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권진, 2017; 김진욱·강상준, 2018; 유지영, 2018; 이숙현·권영인, 2009; 조희금, 2016)이 제시되고 있다. 가정보다 일을 중요시 해왔던 과거의 한국문화의 특성상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직장요인을 가장 먼저 손꼽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성격(Chiel, 2018; Crnic & Low, 2002; Kwok, Ling, Leung et al., 2013; Lemmons, 2015), 부부관계(강수경·최혜정·정미라, 2018; 김리진·황현주, 2014; 김영희·신희정·채영문, 2007; 변선아, 2008) 등이 아버지의 양육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아동의 특성(양미경, 1996; Ishii-Kuntz, 1994; Lerman & Sorenson, 2000)도 아버지의 양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그리고 아동특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각각 요인들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 대표적 학자인 Belsky(1984)는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성격(personality), 자녀의 특성(characteristic),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으로 분류하고 이들 관계를 도식화하여 양육결정모델(A Proces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성격은 양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결혼관계, 사회적 연결망, 직업과 같은 사회적 맥락은 자녀양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부모의 성격 또는 심리적 특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Palkovitz(1984) 역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련된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려면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변인이라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자기통제력, 부부친밀감, 직장의 가족친화성, 사회적 지지, 배우자의 취업여부, 아버지 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성별, 막내자녀연령을 양육결정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자기통제력은 Belsky(1984)의 개인적 성격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부모의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Palmer, 2009), 부부친밀감(변선아, 2008)과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이숙현·권영인, 2009)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성별과 연령

이 아버지 양육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김정, 2005; 손영빈·윤기영, 2011; 이정순, 2003; 이지희, 2005; Gaunt, 2008).

아버지의 양육은 일반적으로 다차원적(Amato & Rivera, 1999)이라 연구자들마다 양육참여 차원이 달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참여를 기술하고 개념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아버지 양육참여 개념은 Lamb(1986)의 개념을 들 수 있다(Habib, 2012). Lamb(1986)은 아버지 양육참여(paternal involvement)를 접근성(accessibility), 직접참여(engagement), 책임감(responsibility)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성은 아버지가 아이 곁에 있어주거나 소극적으로 돌보는 것이고, 직접참여는 아이와 감정을 공유하며 많은 시간을 놀아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은 아이의 보육시설을 찾고 결정하기, 선생님과 상담하기, 학부모 활동 등 자녀양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책임감은 자녀의 안전, 복지, 건강, 교육 등 자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남효정·이숙현, 2011; 유지영, 2014; Pleck & Stueve, 2001).

이러한 Lamb(1986)의 개념 하위요인 중에서 해외 연구들은 주로 직접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는 직접적인 참여가 접근 가능성이나 책임감보다 양육행동을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양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Pleck, 2010). 국내의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Lamb(1986)의 직접참여(engagement)가 주가 되어 접근성과 책임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보았다(유지영, 2014) 따라서 여가활동, 함께하는 활동, 생활지도, 돌보기 및 지도, 학습지도, 발달적지지 등 참여 영역으로 양육참여를 측정하였다(조희금, 2016).

그러나 양육은 노동과 감정을 동시에 동반하는 복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양육의 행동과 심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Habib, 2012). 같은 맥락에서 유지영(2014)은 아버지 양육참여(paternal involvement) 중 책임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책임감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가 높은 수준이고,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거나 맞벌이가 많아지는 배경에서도 여성이 거의 양육책임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직접참여와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지영(2017)은 Lamb(1986)의 양육참여(paternal involvement)의 개념을 비책임성[1]과 책임성으로 재정의 하였다. 비책임성은 노동집약적 형태의 자녀돌봄이고, 책임성은 부모로서 자녀 건강 복지 교육 등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를 위해 주요 사항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총괄자이자 경영자적 역할이라고 간주하였다.

---

1) Lamb(1986)의 아버지 양육참여(paternal involvement) 하위개념 중 접근성(accessibility), 직접참여(engagement)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요소 중 책임감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남성은 일차적 생계부양자, 여성을 일차적 자녀 양육자로 규정하여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왔다(나성은, 2014a).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남성의 양육참여는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을 주된 양육자로 보는 인식 때문에 남성들은 양육의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양육에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아이의 의식주와 안녕을 고민하고 부담하는 주체는 여성이다(나성은, 2014a; 유지영, 2017). 즉, 남성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보내는가가 진정한 양육분담의 기준이 아니라, 양육의 책임감을 남성도 얼마만큼 인지하고 실제로 분담하는지가 진정한 양육 분담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감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성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나성은, 2014a). 현대사회는 여성의 이상적인 삶을 전업주부로 인식하던 시대는 지났고 한 가정에 두 명의 생계부양자가 존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성이 취업으로 인한 가정 밖에서의 활동이 남성과 유사해짐에 따라 양육의 주 책임자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신용주, 2008). 더불어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한부모 아버지가 늘어나고 있고 아버지들이 홀로 양육책임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아버지의 양육책임감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양육책임감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양육책임감 정도를 조사한 유지영(2017)의 연구와 유아기 자녀를 양육을 매개효과를 본 조윤주, 김지현, 한준아(2018)의 연구가 전부이다. 따라서 양육책임감과 주요 변수 간의 관계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Lamb(1986)의 아버지의 양육(father involvement)의 하위개념의 접근성와 직접참여를 묶어서 양육참여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을 차별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Belsky(1984)의 양육결정모델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 양육(father involvement)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버지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질문 2. 아버지 특성(연령, 교육수준, 자기통제력), 사회적 맥락(부부친밀감, 직장의 가족친화성, 사회적 지지, 배우자 취업여부, 아버지 소득), 아동특성(자녀수, 막내성별, 막내연령)이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3. 아버지 특성(연령, 교육수준, 자기통제력), 사회적 맥락(부부친밀감, 직장의 가족친화성, 사회적 지지, 배우자 취업여부, 아버지 소득), 아동특성(자녀수, 막내성별, 막내연령)이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경남 및 경북 지역에서 어린 자녀[2]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210명이다. 조사대상자 표집은 목적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직장 주위와 문화센터 주위 등을 중심으로, 어린자녀를 둔 아버지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0)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연령	30세 이하	4	1.9
	31~40세 이하	130	61.9
	41세 이상	76	36.2
		M=39.3(세), SD=4.2	
교육수준	고졸	21	10.0
	대졸(전문대졸 포함)	157	74.8
	대학원 이상	32	15.2

2) 어린 자녀의 기준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남성 소득	300만원 이하	84	40.0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62	29.5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36	17.1
	500만원 초과	28	13.3
배우자 취업	유	116	55.2
	무	94	44.8
자녀수	1명	72	34.3
	2명	121	57.6
	3명	17	8.1
막내자녀성별	남	112	53.3
	여	98	46.7
막내자녀연령	3세 이하	88	41.9
	4세 이상~6세 이하	70	33.3
	7세 이상	52	24.8

2. 연구도구

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소극적인 접근과 직접적인 참여 및 상호작용 정도로 양육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지영(2017)의 비책임성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비책임성의 20문항으로 3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원척도를 참조하여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참여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양육참여 1문항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종분석은 이를 제외한 양육참여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참여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0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나. 아버지의 양육책임감

아버지의 양육책임감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책임을 느끼고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사항을 인지, 계획, 결정, 행동하는 총괄적인 역할이다(유지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양육책임감을 자녀를 돌보는 것과 안녕에 주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육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지영(2014; 2017)의 책임성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책임감의 총 20개 문항으로 3점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원척도를 참조하여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1점)'에서 '거의 항상 참여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책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책임감 2문항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종분석은 이를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책임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2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이 개발한 13문항의 단축형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단축형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문항 중 8문항이 역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1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라.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배우자로부터 의사를 존중받고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명신(2015)의 척도 1문항과 정소영(2018)의 척도 5문항을 사용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많이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친밀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6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마. 직장의 가족친화성

직장의 가족친화성을 측정하기 위해 Allen(2001)이 개발한 14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고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친화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장의 가족친화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2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의 협력(13문항), 주위의 도움(12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위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주위의 도움에 대한 12문항만 발췌하여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4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사. 기타 독립 변수

아버지의 연령, 소득은 기입하도록 하였다. 아버지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고, 소득은 월소득을 측정하였다. 배우자의 취업여부와 막내자녀의 성별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녀수는 1명, 2명, 3명, 4명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들의 자녀수는 최대 3명으로 측정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변동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아버지 특성, 사회적 맥락, 아동특성이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가. 변수의 기초통계

자기통제력, 부부친밀감, 직장의 가족친화성, 사회적 지지, 양육참여, 양육책임감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자기통제력 3.51(±.50)점, 부부친밀감 3.29(±.57), 직장의 가족친화성 3.34(±.70), 사회적 지지는 3.25(±.70), 양육참여 3.30(±.63)으로 중간점수 이상이었다. 그러나 양육의 책임감은 2.53(±.73)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표 2〉 변수의 기술적 통계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통제력	2.08	4.85	3.51	.50	.124	-.169
부부친밀감	1.00	4.00	3.29	.57	-.912	.691
직장의 가족친화성	1.29	5.00	3.34	.70	-.264	.068
사회적 지지	1.33	5.00	3.25	.70	-.006	-.064
양육참여	1.58	4.89	3.30	.63	-.137	.121
양육책임감	1.00	4.89	2.53	.73	.273	-.129

나.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의 상관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연령은 배우자취업여부(r=.157, p<.05), 아버지 소득(r=.161, p<.05), 자녀수(r=.298, p<.01), 막내자녀연령(r=.563, p<.01)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그러나 연령은 양육참여(r=-.165, p<.05)와는 부적상관성을 가졌다. 교육수준은 자기통제력(r=.150, p<.05)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자기통제력은 부부친밀감(r=.202, p<.01), 직장의 가족친화성(r=.318, p<.01), 양육참여(r=.303, p<.01), 양육책임감(r=.139, p<.05)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둘째, 부부친밀감은 사회적 지지(r=.225, p<.01), 양육참여(r=.153, p<.05), 양육책임감(r=.151, p<.05)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그러나 막내자녀연령(r=-.143, p<.05)과는

부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직장의 가족친화성은 양육참여(r =.281, p<.01), 양육책임감(*r* =.220, *p*<.01)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그러나 직장의 가족친화성은 아버지소득과 부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 취업여부(*r* =.251, *p*<.01), 양육참여(*r* =.263, *p*<.01), 양육책임감(*r* =.275, *p*<.01)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배우자취업여부는 막내자녀연령(*r* =.136, *p*<.05), 양육참여(*r* =.202, *p*<.01), 양육책임감(*r* =.238, *p*<.01)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아버지소득은 막내자녀연령(*r* =.162, *p*<.05)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그러나 아버지소득은 양육참여(*r* =-.279, *p*<.01), 양육책임감(*r* =-.228, *p*<.01)과 부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셋째, 막내자녀연령은 양육참여(*r* =-.238, *p*<.01)와 부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넷째, 양육참여는 양육책임감(*r* =.701, *p*<.01)과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다.

〈표 3〉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연령	1												
2.교육 수준	.034	1											
3.자기 통제력	.019	.150*	1										
4.부부 친밀감	-.130	.087	.202**	1									
5.가족 친화성	-.035	-.058	.318**	.074	1								
6.사회적 지지	-.077	.096	.079	.225**	-.015	1							
7.배우자취업[3]	.157*	-.016	.043	-.102	-.094	.251**	1						
8.아버지소득	.161*	.038	-.093	.002	-.160*	.020	-.015	1					
9.자녀수	.298**	-.056	.042	-.125	.039	-.121	.086	.004	1				
10.막내성별[4]	-.051	-.037	.052	-.118	-.029	-.001	.003	.030	-.123	1			
11.막내연령	.563**	-.039	-.073	-.143*	-.038	-.072	.136*	.162*	.172*	-.107	1		
12.양육참여	-.165*	.083	.303**	.153*	.281**	.263**	.195**	-.279**	-.063	.022	-.238**	1	
13.양육책임감	-.034	-.002	.139*	.151*	.220**	.275**	.219**	-.238**	-.109	.049	-.071	.701**	1

* $p < .05$, ** $p < .01$.

3) 배우자 취업은 더미변수 사용함. 취업중일 때 "1", 미취업일 때 "0"으로 처리.
4) 막내성별은 더미변수 사용함. 남자아동은 "1" 여자아동은 "0"으로 처리함.

2.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30.9%(r^2=.309)로 나타났다(F=8.057, p<.001). 자기통제력(β=0.167, p<.01), 가족친화성 인식(β=0.210, p<.01), 사회적 지지(β=0.174, p<.01), 여성취업여부(β=0.197, p<.01), 아버지 소득(β=-0.200, p<.01), 막내연령(β=-0.162, p<.05)이 양육참여를 의미 있게 예측하였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취업중일 때 양육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교육수준, 부부친밀감, 자녀수, 막내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양육참여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B	β	t
개인적 특성	연령	−0.007	−0.044	−0.584
	교육수준	0.042	0.054	0.894
	자기통제력	0.208	0.167	2.554*
사회적 맥락	부부친밀감	0.055	0.050	0.783
	가족친화성	0.187	0.210	3.288**
	사회적지지	0.155	0.174	2.709**
	배우자취업	0.248	0.197	3.102**
	아버지소득	−0.001	−0.200	−3.268**
아동특성	자녀수	−0.023	−0.022	−0.342
	막내성별	0.013	0.010	0.171
	막내연령	−0.042	−0.162	−2.214*
상수			1.780	3.232**
F			8.057***	
r^2			.309	
r^2 adj			.271	

* p 〈 .05, ** p 〈 .01, *** p 〈 .001.

나.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책임감에 대한 설명력이 22.5%(r^2=.225)로 나타났다(F=8.057, p<.001). 가족친화성 인식(β=0.203, p<.01), 사회적 지지(β=0.198, p<.01), 여성취업여부(β=0.201, p<.01), 아버지소득(β=-0.210, p<.01)이 양육책임감을 의미있게 예측하였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취업중일 때 양육책임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책임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교육수준, 자기통제력, 부부친밀감, 자녀수, 막내성별, 막내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양육책임감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B	β	t
개인적 특성	연령	0.010	0.059	0.745
	교육수준	-0.014	-0.015	-0.237
	자기통제력	0.012	0.008	0.120
사회적 맥락	부부친밀감	0.138	0.109	1.599
	가족친화성	0.210	0.203	3.000**
	사회적지지	0.204	0.198	2.911**
	배우자취업	0.292	0.201	2.976**
	아버지소득	-0.001	-0.210	-3.235**
아동특성	자녀수	-0.123	-0.101	-1.507
	막내성별	0.086	0.059	0.921
	막내연령	-0.011	-0.037	-0.475
상수			0.799	1.182
F			5.223***	
r^2			.225	
r^2 adj			.182	

** p < .01,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아버지 특성 중 자기통제력은 양육참여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양육책임감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적 맥락 중 직장의 가족친화성, 사회적 지지, 배우자의 취업, 아버지 소득은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동특성 중 막내자녀의 연령은 양육참여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양육책임감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육결정요인 중 사회적 맥락의 가족친화성이 양육참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아버지 소득은 양육책임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의 구분

본 연구에서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육참여의 평균은 3.30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양육책임감은 2.53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양육을 비책임성과 책임성으로 나누어 연구한 유지영(2017)에서도 책임성이 비책임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윤주, 김지현 그리고 한준아(2018)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책임감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태도와 실제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양육에 적극적인 아버지도 본인이 양육의 주체로 인식하더라도 보조자적인 양육에 만족하기 때문에 양육책임감은 낮다고 볼 수 있다. Pedersen(2012) 연구에서도 아버지는 참여하기를 원할 때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참여만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좋은 아버지라고 인식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남성에게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역할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이 기대되어 왔으며, 남성이 자녀를 돌본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Ranson, 2012). 즉, 여성이 양육을 통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아버지는 직장 및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역할 수행을 동일시 해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권진, 2017).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에 쉽게 내면화되지 못하여 수동적인 양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양육 참여만으로도 아버지를 '돌보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개인의 신념과 선택의 문제로 여기고,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확장시키기 어렵게 한다(나성은, 2014b). 즉, 이러한 한계는 돌봄 구조의 변화를 더디게 만들어 아버지의 소극적인 양육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 경험에서 드러나는 가능성과 한계에 낙관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 양육 참여와 양육책임감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보편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직장의 가족친화성과 아버지 양육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성이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양육참여를 높이며(최지은·이숙현, 2015), 개인의 편의에 따라 근무 여건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상황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양육참여가 높아진다는(안수미·이기영·이승미, 2013)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아버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양육 참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아버지들의 근무여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자녀 양육 시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기에 동조하는 아버지의 요구도 비교적 높으며, 높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는 남성에게는 집안일보다 경제적 활동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아버지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2017)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1순위로 언급한 바 있고, 그 다음은 '유연 근무제 확산(14.3%)', '사회 인식 및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12.6%)' 등의 순이었다. 가령 가족친화제도의 일부분인 육아휴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통계청(2017)에 따르면, 한국 아버지의 육아휴직 비율은 2011년 2.4%에서 2016년 8.5%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의 10% 이하의 수준이다.

Fiksenbaum(2014)은 서구에서도 가족 친화 제도의 사용을 지지하는 직장 분위기가 갖추어지지 않아 다수의 직장인들이 낙인의 두려움으로 인해 제도 이용을 망설인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직장 내 동료 및 상사들 사이에 팽배해 있을 경우에도 일-가정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장의 가족친화성은 남성들의 양육책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아버지의 직장환경이 일-가정 균형이 가능하도록 조직이 가족친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원한다고 인식할 때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진욱과 권진(2015)의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경험을 통해 아버지가 양육보조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양육의 전면에 나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조윤경과 민웅기(2012)도 연구에 참여했던 남성들이 자신의 역할을 주양육자인 배우자를 돕는 역할정도로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만, 사실상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돌봄의 지평을 확대하고, 새로운 아버지 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버지가 양육참여에서 책임감까지 이르기까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장시간 근로와 잦은 회식문화(김진욱·강상준, 2018) 등으로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고,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가 적었다. 아버지의 시간적 여유에 가장 저해요인이었던 직장이 가족친화성을 갖게 됨으로써 아버지들도 배우자와 함께 양육의 주체적인 파트너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아버지 소득과 아버지 양육

아버지의 소득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줄어든다는 Kooreman과 Kepteyn(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Coverman(1985)의 가정 내 노동(가사노동과 양육)의 상대적 자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상대적 자원의 차이에 따르면 가정에서 가사노동 또는 자녀양육은 부부간 협상의 결과물이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 또는 양육분담을 하게 된다(Bianchi, Milkie, Sayer et al., 2000).

아버지의 소득과 같은 자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자녀양육에 있어 유리한 협상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은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익숙하지 않은 육체노동이자 감정노동이며,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급노동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자원(높은 교육수준, 높은 직업지위나 소득 등)을 가진 배우자가 가사노동 또는 자녀양육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 협상을 하게 된다. 즉, 소득이 높은 아버지에게는 본인의 소득이 큰 자원으로 인식됨으로써

양육참여를 요구하는 배우자의 주장을 수용하는데 의무감을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조원지, 2001). 이 관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아버지는 자녀양육을 둘러싼 협상력이 낮아 자녀양육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배우자의 취업과 아버지 양육

배우자가 취업 중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취업중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는 연구결과(김희화, 2008)와 일치한다. 안수미(2013)는 배우자의 취업은 아버지에게 양육수요를 증가시키며 배우자 자신에게 이용가능한 시간이 감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취업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아버지들이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만든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가족 내에서의 권리 및 의무, 그로 인한 지위를 재배치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필요조건으로 만들었다(나성은, 2014b).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취업이 양육책임감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양육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가정에서 양육자 역할을 인식하는 아버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취업 중인 배우자가 아버지에게 진보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양육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의 가족친화성은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 수준에 관련이 있었다. 이는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생활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아버지의 장시간 근로시간의 개선이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 내 실질적 남성할당제 입법화, 유연근무제 확산, 아버지 양육지원을 위한 정보와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지원센터

등 가족친화제도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업과 아버지들이 돌봄의 양성화와 사회화는 서로 상호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2002; 김나연, 2010에서 재인용). 이런 점에서 획일적인 가족친화성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성 모델 개발과 컨설팅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것이고, 아버지들은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을 권리로 여길 것이다.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양육에 대한 성 균형 배분이 가족 정책의 목표인 동시에, 양육의 문화적 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직접 돌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Eerola(2014)의 핀란드 아버지 16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양육책임감은 일상적인 의무와 포괄적인 약속의 수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핀란드의 성 평등하고 가족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의 결과로서, 책임감 있는 양육은 아버지의 권리로서 완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돌봄의 양성화를 받아들임으로서 아버지들이 양육과 돌봄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돌봄'이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부모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이 갖추어질 때 좀 더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경남 및 경북 지역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어 아버지의 자료만 수집·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좀 더 균형 잡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부간 양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의 인식 및 태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경·최혜정·정미라(2018).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111-128.

고용노동부(2017).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4944047190 48

권진(2017).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 일가족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나연(2010).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일-가족양립정책의 비교연구: 영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리진·황현주(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부모애착과 영아에 대한 아버지애착의 관계: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학논집, 18(4), 55-73.

김영철·양진희(2014).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 아시아교육연구, 15(4), 81-107.

김영희·신희정·채영문(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김정(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욱·강상준(2018).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 사회보장연구, 34(1), 25-54.

김진욱·권진(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2(3), 265-302.

김희화(2008). 아버지의 부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9(5), 181-195.

나성은(2014a).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 30-40대 중간 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나성은(2014b). 남성의 양육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구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4(2), 71-112.

나현정(2017). 아버지 양육참여도 수준에 따른 유아의 성역할 개념 및 창의성 차이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21.

남효정·이숙현(201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07-121.

박희숙(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와 영유아기 발달 간 관련성에 대한 메

타분석. 한국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20(3), 251-272.

변선아(2008). 중년기 아버지의 부부친밀감이 생활 만족도 및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영빈·윤기영(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용주(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참여에 관한 문헌 고찰. 생활과학연구, 13, 45-55.

안수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참여와 자녀양육시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수미·이기영·이승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93-119.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유지영(2014). 아버지 자녀양육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개념, 특성, 항목 구성. 사회복지정책, 41(4), 1-19.

유지영(2017). 책임성을 중심으로 본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45-61.

유지영(2018). 근로 변인과 성역할 변인이 남성 육아참여에 미치는 영향-대기업 재직 3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301-322.

이명신(2015). 중년부부의 권력구조. 한국의 중년 여성과 남성: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기획도서 I, 일산: 서현사, 15-82.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4(3), 239-264.

이지희(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소영(2018). 부부의 권력구조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우영·김희영(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7(3), 75-101.

조원지(2001). 직업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6(1), 16-32.

조윤경·민웅기(2012).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실현과정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 이념의 재구조화. 생태유아교육연구, 11(3), 29-56.

조윤주·김지현·한준아(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성감과 돌봄 경험 만족도: 양육책임감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1), 91-111.

조희금(2016).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49-68.

최지은·이숙현(2015). 아버지의 아버지 지위 중요도가 자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계부양자 역할의식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91-116.

통계청(2017).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2020년 1월 17일 인출).

Allen, T. D. (2001). Family-supportive work environments: the role of organizational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414-435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75-384.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Chiel, Z. A. (2018). Parental attribution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observed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olumbia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pp. 243-268). Mahwah, N.J: Lawrence Erlbaum.

Eerola. P. (2014). Nurturing, breadwinning, and upbringing: paternal responsibilities by Finnish men in early fatherhood. *Community, Work & Family, 17*(3), 308-324.

Fiksenbaum, L. M. (2014). Supportive work-family environments: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and well-be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5*(5), 653-672.

Gaunt, R. (2008). Maternal gatekeep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3), 373-395.

Habib, C. (2012).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a literature review exploring paternal involvement with identity theory. *Journal of Family Studies*, *18*(2-3), 103-120.

Ishii-Kuntz, M. (1994). Paternal involvement and perception toward father's role: a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30-48.

Kooreman, P., & Kapteyn, A. (2003).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2), 223-249.

Kwok, S. Y., Ling, C. C., Leung, C. L., & Li, J. C. (2013). Fathering self-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father involvement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8), 1051-1060.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s of fathers.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pp. 3-27). New York: John Wiley & Sons.

Lemmons, B. P. (2015). Exploring the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among non-resident african american fathers: a mixed methods approach. Howard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Lerman, R., & Sorenson, E. (2000).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nonmarital children: patterns, determinants, and effects on their earnings. In H.E. Peters, et al. (Eds.), *Fatherhood: research, interventions, and policies* (pp. 137-158). New York: Haworth Press.

Palkovitz, R. (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5-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54-1060.

Palmer, C. D. (2009). Parenting style and self-control skill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octor of Philosophy.

Pedersen, D. E. (2012). The good mother, the good father and the good parent: gendered definitions of parenting.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4*(3), 230-246.

Pleck, J. H. (2010). Paternal involvement: revised conceptualization and theoretical linkages with child outcom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58–93). New York: Wiley.

Pleck, J. H.,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222-271). Hoboken, NJ: Wiley.

Pleck, J. H., & Stueve. (2001). Time and paternal involvement. In K. J. Daly (Ed.), *Minding the time in family experience: emerging perspectives and issues*(pp.205-226). Bingley, UK: Emerald.

Ranson, G. (2012). Men, paid employment and family responsibilities: conceptualizing the 'working father'. *Gender, Work & Organization, 19*(6), 741-761.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논문접수 4월 7일 / 수정본 접수 6월 1일 / 게재 승인 6월 15일

• 교신저자: 이명신,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wellee@gnu.ac.kr

Abstract

Determinant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y among Fathers with Young Children

Suyoung An and Myungshin Le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y among fathers with young children.

Family-friendliness at work had the most substantial effect on parental involvement, followed by the father's income, spouse's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self-control and the youngest child's age.

The father's income had the most substantial effect on parental responsibility, followed by family-friendliness at work, spouse's employment status, and social support.

In this study, parenting was conceptualized as parental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y which were found to be two separate dimensions. It was found that family-friendliness at work was the most powerful determinant of parental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practical policy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increase fathers'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arental involvement.

Keywords: fathers'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parental responsibility, family-friendliness at work